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동지침†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중간 지도자 느헤미야 I (느헤미야 2:1~8)

이종윤 원로목사

1장에서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기도하는 지도자임을 보여 주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 지도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듯 중간 지도자로서 상하의 인간관계가 중요함을 가르친다.

아다스다 왕에게 보고하는 느헤미야. 그는 중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부분 지도자들은 이 중간 지도자에 속한다. 그러나 중간 지도자의 역할은 결코 쉽지 않다. 중간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다.

중간 지도자의 어려움도 있다.

-중간지도자는 창의성 발휘가 어렵다. 너무 창조적이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그렇다고 상관의 산울림만 내면 무능자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중간 지도자는 권위 인정을 받기 어렵다.

-중간 지도자는 책임(의무)은 많고 권리는 없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느헤미야 2장에서 배우자.

느헤미야는 중간 지도자였다. 그는 후일에 예루살렘 총독이 되었지만 아직도 유다는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에 불과했다. 사실 예루살렘은 수산 궁으로부터 1500마일이나 떨어져 있다. 그 때는 오늘 같은 교통시설이나 통신망이 있지도 않았다. 느헤미야는 그곳에 가야만 했다. 느헤미야는 스스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중간 지도자로서 책무를 잘 이행했다.

느헤미야 2장에서 그가 왕 앞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다. 왕의 허락 없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심지어 그는 도시를 마음대로 떠날 수도 없었다.

그는 중간 지도자로서 매우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당시 파사 왕은 절대 권력자다. 왕의 말이 곧 법이었고 왕은 짐승처럼 잔인하고 무자비했다. 그래서 왕은 정적들에 의해 언제 반역과 원한의 피살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을 항상 안고 살았다.

2장 2절이 이 같은 상황을 보여 준다. "병이 없거늘 네 얼굴이 왜 창백한가?"라는 왕의 질문에 그는 크게 두려워했다.

왕 앞에서 수심 띤 얼굴을 보였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다. 더욱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을 재건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은 전에 왕에 의해서 거절된 바 있는 것으로 이 일을 왕이 알게 되면 항명죄에 걸려 당장 죽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에스라가 주전 458년(아다스다 왕 7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가 성전 재건을 서두르며 성을 수축하려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이를 방해하고 아다스다 왕에게 투서를 했다(스4:11-16). 아

다스다 왕은 즉시 조서를 내려 이 일을 중단시켰다(22절).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I. 중간 지도자로서 성공한 느헤미야의 여섯 가지 비결

1. 충성

본문은 왕에 대한 느헤미야의 충성심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 그러나 그의 성공 배후엔 이것이 깔려 있다. 3절에서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한 것은 위선적이거나 형식적인 말이 아니었다. 그는 항상 왕의 관심을 그의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많은 중간 지도자들이 이 점에서 실패한다. 심지어 공개적으로 자기 상관을 비난하거나 또는 추한 인물로 만든다. 그래야 자신이 더 위대해지는 줄 착각하기 때문이다. 상관의 장점보다 약점을 드러내어 상관을 교정시키려고 하고, 변화시키려 한다. 이것은 충성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다.

충성은 틀린 것을 옳다 하고 도와주거나 혹은 어떤 일을 반대만 하는 태도도 아니다. 충성해야 할 대상을 위하여 일을 하는 한 그것은 충성이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다. 바른 충성을 못한다면 그는 다른 곳에 가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협조적 방해꾼은 되지 말아야 한다.

2. 기지(tact)

느헤미야가 아다스다 왕에게 어떤 기지를 갖고 일을 처리했는가를 보자.

① 왜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는 왕의 갑작스런 질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13년 전 (왕위 즉위 7년 때) 에스라가 성을 재건하다가 왕명에 의해 중단되었으니 왕은 앞뒤를 알고 했어야..." 이쯤되면 왕의 마음은 달힐 것이다. 그러나 그는 32절에서 다른 방법으로 설명한다.

왕은 그의 슬퍼하는 이유를 이해했고 도울 마음까지 생겼다.

② 느헤미야는 자기 소원을 정치적 차원이 아닌 개인적 차원에서 말했다.

③ 그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도록 허락 받았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예루살렘을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3절)이라고 했다. 이것은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표현이다. Dale Carnegie는 "당신이 꿈을 원한다면 별집통을 발로 걷어차지 말라"고 했다. 지도자에게 이 같은 기지가 필요하다.

(다음 주 계속)



교구위원회·교육위원회·전도위원회 연합총회

부 예배 후 오후 3시 30분 / 웨스트민스터홀

오늘 부 예배 후 교구위원회·교육위원회·전도위원회 연합총회가 웨스트민스터홀(101호)에서 열린다.

현재 어려운 교회 상황에서 갖게 되는 만큼 교구 일꾼들, 교사들, 남선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은

빠짐없이 연합총회에 참석하기 바란다.

참석 대상은 교구위원회는 교구목사, 교구장, 부교구장, 간사, 다락방장, 부다락방장이며 교육위원회는 교사들이며 전도위원회는 남선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다.

정책 당회

12월 15일(토) 오후 3시

새해 목회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당회가 12월 15일(토) 오후 3시에 열린다. 교역자와 장로들의

모임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비전제시가 확실해지는 회의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2019년을 섬길 일꾼들

지난 주 우리교회는 2019년 을 이끌 일꾼들을 임명하였다.

스데반회 회장으로는 예완식 집사, 부회장은 김광태 집사를 각각 임명하였다. 또한 권사회 회장으로는 허 숙 권사, 부회장은 김선영 권사, 샬롬 권사회는

회장 이은희 권사, 부회장 김숙자 권사를 임명하였다.

또한 각 남선교회, 여전도회 회장 부회장은 총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선출하였다.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봉사하기 바란다.



스데반회 회장 예완식 집사



스데반회 부회장 김광태 집사



권사회 회장 허 숙 권사



권사회 부회장 김선영 권사



샬롬권사회 회장 이은희 권사



샬롬권사회 부회장 김숙자 권사

남선교회		
선교회명	회장	부회장
빌 립	한대석	
안드레	이경순	박원서
베드로		
바 울	장창수	
엘리아	황병석	
모 세	홍창훈	채교천
이 삭	윤명구	김성준
아브라함	오정수	

여전도회		
전도회명	회장	부회장
도르가	구진영	임규연
루디아	박찬미	
보 보	김연화	
마리아	박한옥	임미경
에스터	박종숙	김서윤1
한 나	박현영	
리브가	남태순	신금전
사 라	최봉애	윤갑숙

한가정한선교사 후원·비전2020 후원 농어촌100교회 후원

2018년도 몇주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초에 작성한 한가정한선교사 후원·비전2020 후원·농어

촌100교회 후원이 잘 이뤄져서 선교의 비전이 힘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자.

성경 통독

2018년 시작과 함께 시작한 성경통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1독을 하고 2독 중인 성도들도 계시고 중도에 포기한 성도들도 계실 것이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연말에 연초의 계획과 결심을 기억하고 마지막 성경통독에 매진하자.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감우균·김연화1 오천수 박분옥 한세아 이선희 전용순 성춘모 박계순 윤요섭·안재희 샬롬권사회 권사회 리브가여전도회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기사 정정

지난 주 3월 18일, 교회 난입한 용역 3인(최0민·김0기·신0훈)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약식기소하였다는 「각각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로 정정합니다.

다락방리더교육 종강

하반기 다락방 리더훈련이 12월 19일(수)에 종강한다. 이 날 모든 다락방 리더들이 참석하여 교구목사들로부터 방학 기간 동안 다락방 식구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받는다. 혹한기를 맞아 다락방 모임도 12월 21일(금)까지 모이고 방학한다.

찬양예배 전 교회 회복 기도회

찬양예배 전 오후 4시 30분부터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로 모이고 있다. 교회가 불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찬양과 기도 뿐이다.

찬양과 기도는 사탄의 결박을 푸는 가장 큰 무기다.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란다.

B.M.W.운동에 동참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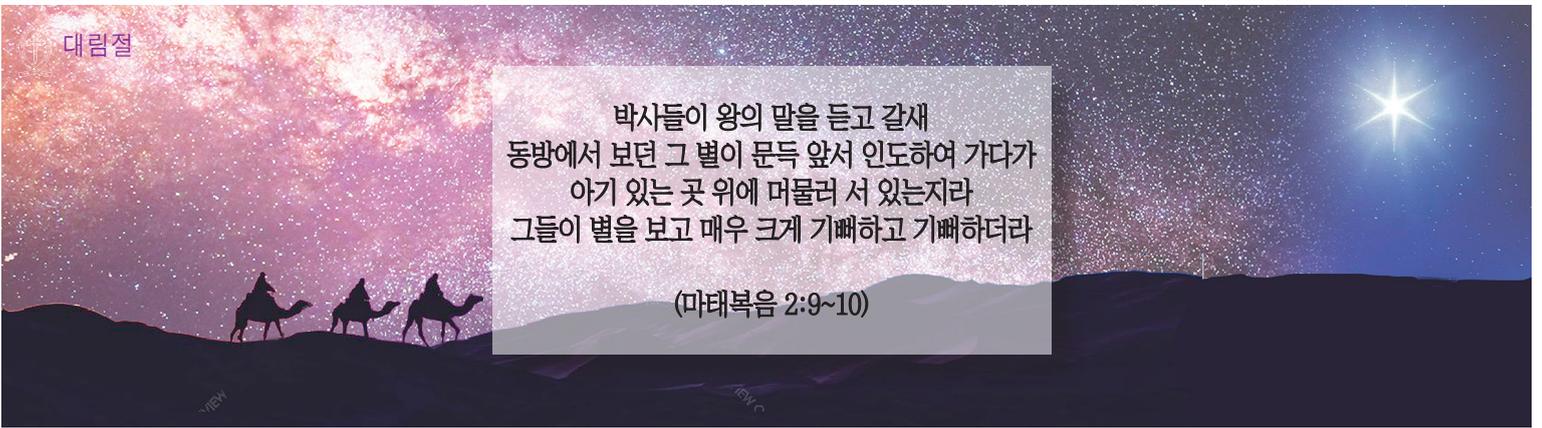
Bus



Metro



Walking



대림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마태복음 2:9~10)

선교보고

주님께서 보내 주신 귀한 생명들



OO에서 사랑하는 교회와 기도의 동역자님들께 평안의 인사와 기도제목을 올립니다. 항상 기억하시며 섬기시는 동역자님들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항상 같이 하시길 기도합니다.

- 선교지 국가를 위한 공통기도제목 -

- ① 12월에 있을 총선 위해
(4년 전 같은 무질서와 데모, 테러 등이 없기를)
- ② 금요일이 휴일인 이곳에 주일이 휴일되기를
- ③ 학교에서 종교 교육시간이 없어지도록
(대학까지 종교시험을 봐야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폐해가 없어지도록)

1. 000호스텔

(유치원부터 컬리지까지 남자30명, 여자 14명)
사춘기 청소년들의 성장기를 매일 보고있습니다. 싸움과 반항, 도망감, 이성친구 문제, 스마트폰에 대한 열망 등... 한국의 청소년들과 다르지 않습



니다. 그러나 현실과 떨어진 삶의 괴리감에 많이 어려워하고 상처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가난한 슬럼가의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침 저녁마다 읽는 성경과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만지심을 체험하며 진리를 먼저 깨닫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기도해주세요.

① 호스텔 장소가 좁아 이사를 놓고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집값이 지금보다 싸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작지만, 운동장이 있는 0000라는 지역에 합당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해결할 문제가 많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11월 중에 이사를 가야하고, 새로운 주인 만나서 해결해야 할 일 등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주시길.

② 호스텔과 학교 오가는 길에 안전사고 나지 않길 위해.

③ 세례 준비 위해 계속 기도해주세요. 10학년 졸업 시험이 끝난 내년 2월경 10학년 아이들 6명과 8학년 4명(총 10명)을 세례를 주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호스텔에서는 세례를 줄 수 없어서 아이들을 OO로 졸업여행 및 세례여행을 겸해서 데려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아이들에게 세례 받을 믿음을 준비시켜주시고 세례여행 재정과 안전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④ 내년에 10학년 아이들 6명이 졸업 후 호스텔을 떠나고, 새로 들어올 아이들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여자 둘과 남자 한명이 들어왔습니다. 여자 아이들은 놀릴 생각이 없었는데 아빠가 마약을 하면서 엄마를 때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시키지 않아서 먼저 받아 호스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받을 수 없지만 정말 필요한 아이들을 데려와 말씀으로 잘 키울수 있기를 위해 기도부탁합니다.

2. 0000 지역사역 (학교, 공부방)

학교 아이들 23명. 현재는 공부방 아이들이 열명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줄어들고



또 시험 시즌이 되면 많이 늘고는 합니다. (학년 유급제도가 있습니다)

① 소망학교를 지역사람들이 여전히 크리스찬 학교라고 비방하며 부르지만, 이름에 걸맞은 멋진 학교가 되게 하시며, 마을 사람들이 학교를 돕는 자가 되길.

② OO, 000 두 선생님이 성실함으로 일하고, 저희와 일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도록.

③ 내년 신입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한 여러가지 해야 할 건물 증축 공사와 책걸상 등 만드는 일등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재정과 성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사람들과 헛된 싸움 싸우지 않길~)

- 기도제목 -

① 저의 비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조롭게 발급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② 한국의 자녀(딸 나라와 아들 겨레)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결혼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③ 저와 모든 스태프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과 싸움이(?) 아닌, 귀한 아이들을 보내주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누리며 섬기길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항상 기도와 사랑과 물질로 도우시는 모든 사랑하는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아이들과 함께 항상 감사 기도드립니다.

OO에서 조남혜 선교사

* 선교를 위해 지역명과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제26회 당진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지난 12월 6일(목) 당진문예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있었다. '커플과 가족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주제로 연주되었던 이날 공연은 시립합창단의 합창과 더불어 유명 뮤지컬배우 남경주와 소프라노 정승원의 무대와 합창으로 듣는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발레로 보는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큰 호응을 받았다.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른 성탄 선물과 같았던 이날 공연은 만석으로 지휘자 백경화 관사는 관객의 아낌없는 갈채를 받았다.

허숙 권사(편집부)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2월10일(월) 미래한국 미디어, 세이브N.K, 「고 김상철 기념사업회 2018 송년의 밤」 행사에서 설교와 자유정의.평화상을 수여한다.



■ 독창회 : 2교구 구민영 집사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 『Nuit D'etoiles 별이 빛나는 밤』 12. 11(화) 오후 8시 금호아트홀 연세

■ 금주의 식사 : 곤드레밥
정을순 집사 김동수 성도
(은혜 중에 장례를 마치고)



세상에 왔다 간 사람 모두가 이름값을 하는 것은 아니다. 유명한 사람들 중에도 그 이름값을 제대로 했다기보다는 수치나 부끄러운 허물투성이로 산 경우가 부지기수다. 성군 다윗도 큰 오점을 남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다. 이처럼 세상살이에서 이름값을 다하고 끝낼 만큼 완전한 자가 없었으니 이 어찌 통분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름값을 하신 분이시다.

흠도 티도 없으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랑하셨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고 버림을 받으시면서 까지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다. 이런 개입에 혈안이 되어서 사기 치고 배반하는 잘난 사람들과는 그 유형이 다르신 예수님은 그 이름이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존경을 받지 않으실 수가 없다. 누구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다. 갓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는 말구유 밖에 거처가 허용되지 않으셨으나 온 인류가 그 이름을 인하여 평화를 맛보고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그 이름 예수 앞에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자.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12월9일	주일	갈 4:8-6:18		행 16-19	
12월10일	월	엡 1:1-4:24		행 20-28	
12월11일	화	엡 4:25-6:24		롬 1-6	
12월12일	수	빌 1-4		롬 7-16	
12월13일	목	골 1-4		고전 1-5	
12월14일	금	살전 1-5		고전 6-12	
12월15일	토	살후 1-3		고전 1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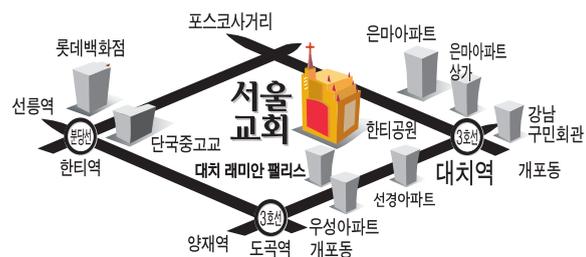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넘치는 대림절이 되게 하소서.
2. 임명된 2019년도 성직위원들의 열심과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교회가 더욱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3. 우리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